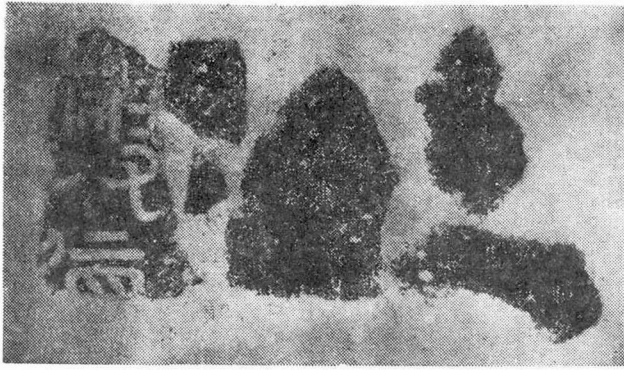


# 興德王陵碑斷石

閔 泳 珪

一九五七年四月十七일부터二十一日까지文教部駐在 조지·피버디大



學 教育使節團 一行  
의 會議가 慶州 佛國  
寺 호밀에서 開催된  
일이 있었다. 이 會  
議에 參席한 機會를  
利用하여 筆者는 그  
다음 날인 十八日 慶  
州古蹟保存會長 崔  
南柱氏와 當時 慶高  
在學中이던 崔氏의  
들째子弟 海楨君과  
함께 三人이 作伴하  
여 安康으로 興德王  
陵과 玉山書院을 探  
訪하고 즐거운 하루  
를 보낸 일이 있다.  
여기에 紹介하는  
六片의 碑文斷石은  
지금은 龜趺밖에 남  
지 않은 陵所附近에  
서 이 때에 얻은 記  
念物들이다. 字徑七

分 歐陽洵體 楷書의 碑文에서 주어진 글자는 모두 三十六·七字 가량  
되는데 이 중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정녕 興德王의 享年을 가리킨 것으  
로 볼 수 밖에 없는 「:壽六十是日也:」가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史  
記나 遺事엔 이에 관한 記載가 없다. 생각컨대 興德王과 同腹兄弟의 만  
이 되는 昭聖王이 이해(丙辰)보다 三十八年前인 己卯年에 第三十九代로  
王位에 올랐고 第四十代 哀莊王은 先王 昭聖王의 王子이자 第四十一代  
憲德·第四十二代 興德의 兩王과는 至親한 叔侄間이다. 遺事는 이 두 叔  
父가 조카王을 弑害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때 弑害된 王의 年齡은 二  
十二歲였다. 무릇 한 女性으로부터의 所産이 또 그 長孫의 年齡보다 아  
래로 멀어지기란 極히 어려운 일이므로 設使 이 때 叔侄이 서로 同甲이  
었다손치더라도 興德王의 崩年은 五十九歲가 된다. 實로 興德王은 哀莊  
王보다 一年長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이 碑文에서 「昭成」 두 글자가 發見되는 것인데 그 위에 一  
字空格이 되어 있으므로 보아 이는 正녕 第三十九代 昭聖王을 가리킨 것  
임이 分明하다. 遺事나 史記엔 모두 昭聖王으로 되어 있고 「一作昭聖王」  
(王曆)、「或云昭成」(本紀)이라 夾注되어 있으나 元來는 碑文대로 昭成  
王이 옳을 것이다.

셋째로 여기서 解釋이 困難한 것은 「:己之歲冊:」이다. 興德王在  
位年間に 已띠를 가진 干支는 없고 即位前年인 先王의 在位十七年이  
乙巳歲인데, 史記나 遺事에서 이 疑問을 풀어줄만한 記錄은 없다. 이 보  
다 數年前인 十四年에 「聘角干忠恭之女貞嬌爲太子妃」란 消息이 本紀에  
보이나 이 때 王位의 繼承者로서 太子가 누구였는지 도무지 밝혀져 있  
지 않고 있다. 先王 憲德王에게 憲章과 張廉 두 王子가 있었음이 이 보  
다 앞서 이미 本紀에 나와 있으나 그 後聞이 또한 杳然하다.

이에 反하여 先王在位時 興德王은 王弟로서 官位의 極을 다하여 十一  
年에 上大等, 十四年에 副君이라는 類例없는 地位에까지 올라 있음을 볼  
때 「:己之歲冊云云」은 必是 이해 十七年에 王弟 興德王이 다른 모  
든 競爭者를 물리치고 太子로 冊封되므로써 王位繼承의 工作을 더욱 鞏  
固한 것이 아니던가 생각해 보는 것이나 이는 물론 臆測以上の 것은

아니다.

六點의 破片에서 얻은 가장 큰 收獲은 字徑 四寸 篆書體의 題名인 「興德」이라 임혀진다. 이 王陵이 新羅第四十二代 興德王의 그것이었음은 오랜 옛날부터 누구나 그렇게 일러 오던 터이다. 또 遺事 王曆篇에도 「陵在安康北 比火壤 與妃昌花合葬」이라 해서 安康方面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新羅統一期 王陵의 主人이 누구나가를 指摘하되 疑心을 들餘地를 없게 한다. 다만 慶州附近에 散在해 있는 다른 모든 王陵들이 그러하듯이 單只 推定의 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唯一한 例外라 는 것이 陵碑題石이 發見되므로써 不動의 證明을 갖추게 된 太宗武烈 王陵 하나였을진대 이제 興德王陵 역시 그 題名이 發見되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完全한 同一人 證明을 얻게 되었음을 筆者로서 기쁘게 생각하 는 바이다.

끝으로 崔南柱氏는 往年에 이 興德王陵에서 五·六片되는 陵碑斷石을 주어 慶州博物館에 寄托한 일이 있다 한다. 末松保和教授 역시 그의 近著(新羅史의 諸問題)에 이 事實을 記載하되 一九三七年의 일로 실어 있다.

아울러 參考한다는 것이 荏苒 未盡한 채로 成稿를 재촉 받으며 한층 아쉬움을 느낀다.

### 灘隱筆 問月圖

#### 全 鑿 弼

李朝前期 畫人中 灘隱 李靈은 畫竹의 名人으로 그 이름이 天下에 떨쳤거니와 그의 品있고 格 높은 作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敬虔한 마음울 일으키게 한다.

筆者는 灘隱의 墨竹圖를 몹시 좋아하고 그 中에서도 風竹 雨竹 雪竹 등을 좋아하여 機會있는 대로 보러 다니기도 하고 또 많은 墨竹圖를 蒐集

하였는데 灘隱의 좋은 作品을 對할 때마다 「이분이 대를 이다지 잘 그렸으니 山水圖나 人物畫같은 그림도 잘 그리지 아니하였을까」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었다. 「槿域書畫徵」에

李靈 字仲變 號灘隱 世宗玄孫 益州君 枝子 中宗三十六年辛丑生 授石陽正 後陞君 善畫竹 且能詩又善書(震彙續考)

灘隱善墨竹又能蘭梅 上甚賞之 每畫一簇 恩資便蕃(識小錄)

題石陽正仲變水墨圖二幅曰 青山倚夏空 風氣浮群木 鬱々歲寒姿 故宜幽

澗谷

怡對群檀何曾秋意足 可憐一葉無自在 千尋木(簡易堂集)

等の 記錄으로 보면 詩를 잘하고 畫에 能하며 梅와 蘭을 잘 그렸고 水墨山水圖를 그린 듯한데, 筆者는 多幸히 그 後에 한두번 灘隱의 梅花와 蘭을 그린 作品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灘隱의 山水畫나 人物圖는 보았다는 이야기조차 들어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只今으로부터 二十六·七年前 偶然히 어느 骨董商에서 珍貴한 畫帖 한 卷을 入手하였는데 그 中에서 灘隱의 人物圖 一幅을 發見하였으니 그 때에 기뻐던 생각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 古畫帖은 李朝英祖時 古書畫의 大收藏家로 이름이 높던 石農 金光國이 自手로 蒐集編纂한 것으로 幅數는 그다지 大하지 못하나 알뜰히 모은 稀貴한 畫帖이었다.

石農 金光國도 灘隱의 人物圖를 처음보고 몹시 珍貴하게 생각하였던 모양으로 題하여 曰 「問月圖」라 하고 아래와 같은 題贊을 썼다.

灘隱梅竹蘭蕙在在有之至於山水人物餘〔未〕當見之今得其所作望月圖蓋以寫竹之筆「法草々爲之極有疎散之韻昔荆蠻民自題其」竹曰聊以寫吾胸中之逸氣灘隱之意其亦「類是耶

金光國

이 問月圖는 그리 크지 않은 畫帖 中의 한 幅으로 橫 一六cm 堅 二四cm의 小品이나 石農 金光國의 贊과 같이 疎散之韻이 畫幅에 高요히 흐르고 있는 듯하다.